

빛가람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속도...공간 활성화 기대

복합혁신센터·생활SOC복합센터 등 내년 완공...조성 11년 만 어린이도서관·육아지원시설·상생푸드마켓 등 편의 시설 입주

내년이면 빛가람혁신도시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중인 복합혁신센터, 생활SOC복합센터 등이 내년 완공, 개장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2025년 9월 빛가람동 생활SOC복합센터가 문을 연다.

생활SOC복합센터는 빛가람동 라온초교 인근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연면적 4480㎡)로 조성되며 어린이도서관, 육아지원시설, 지역의 로컬푸드 직판장인 상생푸드마켓 등 시민 편의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당초 생활SOC복합센터는 지난 2023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했지만 설계과정에서 어린이 도서관 규모, 광케이블 이설 작업 등으로 인해 개관 시기가 2년 가까이 늦춰졌다. 지난 4월 착공에 돌입, 오는 2025년 8월 준공 예정이다.

나주시는 한 달 간의 시범 운영 뒤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기공식을 개최한 복합혁신센터도 내년 5월 준공 예정이다. 복합혁신센터는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연면적 2만191㎡)의 생활체육·문화·여가를 지원하는 융·복합 시설이다.

실내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문화센터, 혁신도시 발전재단 등이 들어서고 지역 청년들의 정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조성된다.

센터가 조성되면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소통의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어린이 테마파크도 내년 12월이면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녀를 둔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어린이 테마파크에는 ▲어린이 물놀이 시설 ▲실내 놀이터 ▲숲속 놀이터 ▲에너지 정원(가칭) 등이 들어서고 미디어아트 등을 활용한 체험 교육형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올해로 조성 11년차를 맞은 빛가람혁신도시는 젊은층 중심으로 인구 유입이 이뤄져 아동·청소년



빛가람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복지·여가 시설들이 오는 2025년 잇따라 개소할 예정이다. 사진은 복합혁신센터(왼쪽)와 생활SOC복합센터 조감도.



빛가람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복지·여가 시설들이 오는 2025년 잇따라 개소할 예정이다. 사진은 복합혁신센터(왼쪽)와 생활SOC복합센터 조감도.

인구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 침체로 상가 활성화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민 불편이 잇따랐다.

혁신도시 부동산업계에서는 내년 복합센터 등이

본격 운영되면 정체상태에 있는 인구 유입이 속도를 내는 등 도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오는 2025년 생활SOC복합센

터 등이 들어서면 정주여건 개선이 이뤄져 혁신도시 인구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남 전선 지중화율 9.3%...지역간 편차 심각

열악한 지자체 재정 여건으로 전남 전선 지중화가 더딘 실정이다.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한 한전측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의정부시 갑) 의원이 한전 전력공사(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전선 지중화율은 9.3%(2023년 말)로, 경북(7.8%)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았다.

서울이 62.2%로 가장 높았고, 대전(57.6%), 인천(47.1%), 세종(46.7%), 부산(45.3%), 광주(39.1%)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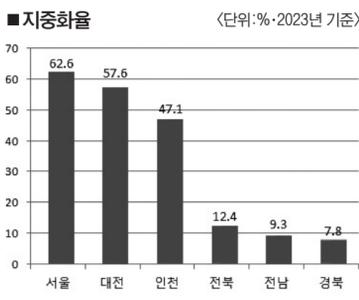
지역 간 지중화율 격차도 심각한 실정이다.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서울과 가장 낮은 경북 간 격차가 8배나 났고, 지중화율이 높은 상위 지역은 45% 이상인 반면 하위 5개 지역은 13%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역 간 지중화율 격차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과 관련이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지중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와 한전이 절반씩 부담해 추진하는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우선 순위에 밀리다보니 전선 지중화에 예산 투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박지혜 의원은 "전선 지중화 사업은 지역민들의 안전과 연결되는 사업"이라며 "재정이 열악한 지



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율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혁신도시 명소로"

나주시, 이전기관들과 간담회

나주 영산강 일대 지방정원 조성 사업이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주시도 최근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영산강 정원 등 영산강 명소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원들과 영산강 정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핵심 현안인 '새로운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 구현을 위한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진행 상황 등을 설명했다.

나주시는 오는 2027년까지 도비(49억)와 시비(101억) 등 151억원을 투입, 나주시 영산동 766-1 일대에 주제정원과 편의·체험시설을 갖춘 영산강 지방정원을 조성키로 하고 전남도 지방재정투

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전사,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학연고 등 10개 주요 공공기관 임원들이 참석했다.

나주시는 영산강 정원의 현황과 향후 비전을 소개하고 '2024 나주 영산강 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대 효과를 강조했다.

이전 공공기관 임원들은 영산강 정원이 지역 발전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영산강 정원의 지속 발전을 위한 각 기관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영산강을 전국적 명소로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 전력 설비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효성중공업 공동 개발

한국전력공사(한전)는 1일 효성중공업과 전력설비의 고장 위험 및 수명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 '알프스(ARPS)'를 공동 개발했다.

알프스는 한전의 전력 설비 예방진단기술과 효성중공업의 자산관리시스템을 융합한 전력설비 예방진단-자산관리 통합 시스템으로, 플랫폼 하나로 실시간 전력 설비 관리가 가능하게 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21년 예방진단기술 개발을 완료한 뒤 지난 3년간 200만 건 이상 축적된 설비 운영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해 현장에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한전의 예방진단기술에 자산관리시스템을 더한 알프스를 통해 실시간 상태진단을 통해 전력 설비 고장을 예방하고, 최적의 유지·보수 일정 및 교체 우선순위 등을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전은 알프스 도입을 통해 고객은 전력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투자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이 협업, 발전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글주간 체험 프로그램 진행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4 한글주간(4-10일)' 기간동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행사는 한글의 우수성과 한글 도메인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한글 국가도메인에는 '한글.kr', '한글.한국'이 있으며, '국민신문고.kr', '친환경발대.kr',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 등이 있다.

KISA는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광화문 광장,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용산 한글박물관에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